

“원톱은 나”

김신욱, 눈도장 ‘왕’



2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LA 콜리세움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의 경기. 전반 10분 첫골을 성공시킨 김신욱이 환호하고 있다. 한국대표팀은 30일 멕시코, 2월 2일 미국과 잇따라 평가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한국-코스타리카 평가전 결승골로 1대0 승리 주역

작년 러시아전 이어 연속골...홍 감독 재신임에 ‘화답’

‘고공폭격기’ 김신욱(26·울산 현대)이 A매치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홍명보 감독의 눈도장을 제대로 받았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6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콜리세움에서 열린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에서 김신욱의 선제 결승골을 앞세워 1-0 승리를 거뒀다.

김신욱은 전반 10분 고요한이 문전에서 내준 패스를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 골을 골대 왼쪽 구석에

꽃아 승부를 가르는 ‘한 방’을 쏘아올렸다.

앞서 고요한에게 연결된 이웅의 날카로운 침투 패스도 인상적이었지만 키가 196cm에 달하는 ‘거인’ 김신욱이 몸을 날려 넘어지면서도 정확한 슈팅으로 연결하는 모습은 탄성을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로써 김신욱은 선제골을 넣은 지난해 11월 19일 러시아와의 평가전에 이어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다. 홍명보호(號) 출범이후 A매치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선수는 김신욱과 지난해 9월 아이티, 크로아티

아전에서 득점한 이근호뿐이다.

이날 득점으로 김신욱은 홍명보호의 가장 확실한 공격 옵션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김신욱의 이날 활약은 득점에만 그치지 않았다.

홍 감독은 그간 주로 가동한 ‘4-2-3-1’ 전술을 약간 변형해 2선 중앙 공격수를 전방에 세우는 ‘4-4-2’에 가까운 전술을 실행했다.

김신욱은 본래 자리인 최전방에만 머물지 않고 좌·우 측면과 2선까지 넓게 그라운드를 썼다.

그가 오히려 최전방에서 벗어난 자리에 있을 때 ‘장신’이라는 그의 장점은 더욱 빛을 발하는 모습이었다. 김신욱이 시야를 막으며 2선까지 내려와 연계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코스타리카 수비진은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전반 36분에는 높게 뜬 공에 머리를 갖다대 측면 공격수 김민우에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김신욱은 홍 감독의 데뷔전인 2013 동아시아컵에서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 번도 선발로 출전하지 못했다. ‘해딩만 잘하는 반쪽 공격수’라는 비판 속에 8월 평가전을 앞두고는 아예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절치부심한 그는 발밑 플레이 향상을 위한 훈련에 집중했고 K리그 막판 골 행진을 이어가며 ‘진화형 거인’의 면모를 과시하기 시작했다.

결국 홍 감독은 스위스, 러시아와 평가전을 앞두고 4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달아줬고 김신욱은 연속골 행진으로 홍 감독의 재신임에 진하게 화답했다.

김신욱은 경기를 마친 뒤 “지난 스위스, 러시아전과 마찬가지로 감독님이 정해진 역할에 충실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다음 경기부터는 기회마다 골로 연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동원이 26일 도르트문트전에서 골을 기록한 후 동료 안드레 한(오른쪽)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동원, 복귀 자축포

獨 도르트문트전 동점골...MVP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로 돌아온 광양제철고 출신 지동원(23·아우크스부르크)이 복귀를 자축하는 골을 터뜨렸다.

지동원은 26일(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도르트문트와의 독일 프로축구 2013-2014시즌 1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2로 뒤진 후반 27분 동점골을 기록했다.

미드필더 안드레 한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열린 크로스를 골지역 오른쪽에서 기습적 헤딩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지동원의 골에 힘입어 2-2로 비겼다.

지동원은 이날 경기에서 후반 25분에 조커로 투입돼 불과 2분만에 골을 터뜨려 마르쿠스 바인지를 아우크스부르크 감독에게 전술적 만족감을 선사했다. 이날 경기는 지동원의 아우크스부르크 복귀전이였다.

지동원은 지난 시즌 겨울 이적시장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에서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돼 팀의 1부 리그 잔류를 견인했다. 그는 당시 임대 기간인 17경기에서 5골을 터뜨린 뒤 이번 시즌 선덜랜드로 복귀했다. 지동원은 올겨울 이적시장에 선덜랜드에서 아우크스부르크로 다시 이적해 이날 첫 경기에 나섰다. 분데스리가는 이날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 지동원을 선정했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방콕 전훈
‘수비’ 이종권·‘골키퍼’ 김병지

22살 차 골키퍼 김병지와 수비수 이종권이 ‘찰떡궁합’으로 전남 드래곤즈의 재도약을 다진다.

2년 연속 K리그 클래식 하위 스플릿에 머물렀던 전남은 올 시즌을 새출발의 해로 삼았다. 2014년 상위 리그 진출, FA컵 4강이 전남의 목표다.

목표달성을 위한 우선 과제는 수비 안정이다.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된만큼 작은 실수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전남이 구상하는 든든한 수비의 중심에는 삼촌과 조카로 통하는 골키퍼 김병지(44)와 수비수 이종권(22)이 있다.

두 사람은 무려 22살 차다. 이종권은 대선배 김병지를 ‘삼촌’이라고 부른다.

이종권은 “작년 입단했을 때 팀에서 ‘삼촌으로 통일하라’고 해서 삼촌으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16살 아들을 둔 김병지도 삼촌이라는 호칭이 싫지 않다. FC 서울 시절부터 삼촌으로 불리면서 형보다는 삼촌이라는 호칭이 더 편하다.

김병지는 “서울 있을 때는 박주영(29·아스널)이 기준이었다. 박주영 밑으로는 모두 삼촌이라고 불렀다. 이청용(26·볼턴)과 기성용(26·선덜랜드)도 내 조카였다”고 웃었다.

김병지는 이종권에게 삼촌처럼 든든한 선배다. 어린 수비수는 위치선정, 중앙 수비수와의 호흡 등에 대해 베테랑 골키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며 건실한 측면 수비수로 성장했다. 큰 신세도 졌다. 지난해 성남과의 원정경기에서 수비 도중 반칙을 범해 페널티킥을 내준 아찔한 기억이 있다.

이종권은 “왼쪽 수비 경험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페널티킥까지 내줘 경향이 없었다. 작년에는 내가 삼촌한테 신세를 졌으니 올해는 그것을 갚아야겠다. 몸을 날려서라도 골을 막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삼촌과 조카’의 목표는 0.8이다. 경기당 평균 실점률을 0.8 이하로만 막는다면 팀이 상위 스플릿으로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김병지는 “팀 목표가 개인 목표다. 작년에 평균 1.1 실점을 했는데 물론 쉽지 않겠지만 0.8점대로 묶고 싶다. 이 목표를 이룬다면 3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이종권도 “삼촌을 도와서 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선수가 되고 싶다. 무조건 6강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전남 부활의 해’로 삼은 올 시즌 90년대 중·후반의 영광을 다시 한 번 재현하자며 서로에게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김병지가 조카에게 바라는 것은 ‘25경기 이상 출전과 태극마크’. 이종권은 삼촌에게 ‘팀 6강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바램을 얘기했다.

한편 지난 20일 태극 방콕에 캠프를 차린 전남 선수단은 재도약을 목표로 2월9일까지 전지훈련을 이어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i.co.kr

“삼촌·조카 합심...최소 실점 합작합니다”

이광종號, 승부차기 패

요르단에 2-3...AFC U-22 4위

이광종 호(號)가 2014 아시아축구연맹(AFC) 22세 이하(U-22) 챔피언십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전 끝에 겨 4위를 차지했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 26일(한국시간) 오만 무스카트의 시브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치러진 요르단과의 3-4위 결정전에서 연장까지 120분 동안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에서 2-3으로 패했다.

한국은 승부차기에서 1, 2번 키커인 백성동과 문창진이 연달아 실축해 0-2로 끌려가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한국은 3번, 4번 키커인 남승우(제프 유나이티드)와 임창우(울산)가 연달아 승부차기를 넣어 2-3으로 쫓아갔다. 하지만 마지막 키커로 나선 윤일복의 솜이 골대 위를 훌쩍 넘어가며 뒤집기에 실패, 그대로 패배를 고프었다. /연합뉴스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드립니다.



부담없습니다!

- 5~6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안합니다!

- 한밤 한밤 직접 웨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 갖고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차편 15분거리
-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 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거리
-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인접
- 전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www.geumsocjang.com

한해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 고객님을 섬기는

금수장 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2014년 신년회
떡국식사
예약 접수중!



30년 전통의 한정식



-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 32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Coffee & Wine 카페 보네르 OPEN

